



## 김지영

(현)동양대학교 초빙교수(교양학부, 미디어와 정치)  
 (전)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언론특위 위원장, 이사  
 (전)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심의실장  
 (전)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 위원  
 (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전)언론중재위원  
 (전)경향신문 편집국장, 편집인(상무)

# 2017 A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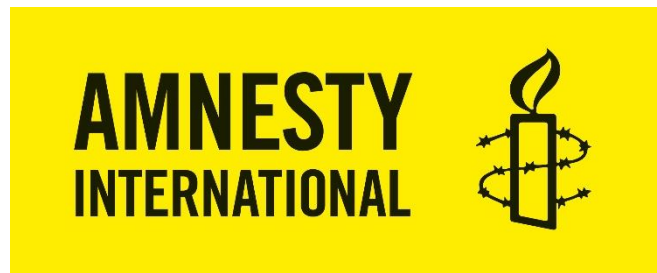
### 임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인권환경은 가령 30~40년 전과 비교해볼 때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한 폭만큼, 또는 그 이상입니다. 80년대만 해도 권위주의적 정권아래에서 정치적 인권과 노동 인권이 주로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권문제는 그야말로 복잡다기화 해졌습니다. 특정한 분야를 넘어 전분야에 걸쳐, 특정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국내문제들이 국제문제와 폭넓게 각각 얽혀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전 인권문제를 삶의 보편적인 과제로 여기는, 인식의 대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권운동의 방향성이나 방법에도 시대의 조류 변화에 맞추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러자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해서 더 심도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미디어 분야에서 종사한 저 역시 미력하나마 그 경험을 앰네스티의 더 바람직한 활동과 성장에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임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임원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분야는 그 기술적 방법이나 내용에서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어 앰네스티는 홍보활동 등에서 새로 적응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디어 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인권문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을 대할 때 판단과 대응전략 수립에도 오랜 언론계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신문기자로서 언론계 현역으로 일할 때부터 앰네스티의 가치에 공감하고 바쁜 시간을 틈내 부족한대로 그 활동에 동참해온 저에게 앰네스티 활동은 평생 사업이기도 합니다. 임원 으로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 박성식

앰네스티 (2008~)  
앰네스티 55그룹 (2012~) 회원  
인권대학 (2011)  
캠페이너 양성과정 (2014) 수료  
이노베이션 코칭 (사회적 기업 외)  
대중문화 평론 (표현의 자유 외)

# 2017 AGM

### 임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변화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 박성식입니다. '평범한 이들의 특별한 변화'라는 말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앰네스티의 슬로건에 공감하며 인권에 대한 꿈을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희망에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개인의 일상에 더 진보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앰네스티에 친근하게 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대하는 현장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리라 믿고 이사에 출마하였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 임원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앰네스티는 많은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회원에게 전달되고 동참을 얻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고 확산되도록 여러분과 논의하고 실천함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회원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과정을 함께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이외에도 많은 채널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콘텐츠는 다양화되고, 행사와 그룹 활동은 보다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백남기 다이인 플래쉬몹', '여성의 자기결정권 토의' 같은 행사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의 이런 활동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